

# “원칙과 기본 지켜야 일류 국가죠”

## tvN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

법현 스님 · 인명진 목사 · 홍창진 신부

종교계 멘토 3인방이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가 인방극장을 찾았다. tvN이 준비한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는 '열린 스님' 법현 스님, '포청천 목사' 인명진 목사, '괴짜 신부' 홍창진 신부가 출연 종교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패널로 참여한 종교계 멘토 3인방은 평소에도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쓴 소리로 아끼지 않는 시대의 멘토들이다. 이번 방송에서는 각기 다른 종교의 대표 얼굴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행복을 이야기했다. 5월 29일 첫 방송은 세월호 사건 이후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본'부터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MC로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 개그우먼 김숙이 참여했다. (이하 호칭 생략)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종교인들에게 기본이란?

MC:종교인들에게 기본이란 어떤 것일까?

인명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사람입니다. 저는 기본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세월호 등)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사람 위에 돈, 권력, 출세가 중심이 되어 생긴 문제들입니다.

지켜도 되는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결국 규칙을 어기는 것을 특별로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어른들이 기본을 지킬 때 이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인명진 종교인들에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 정신적인 가치를 잘 지도했는지 이것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종교인들이 기본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고의 공통점은 정신적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

MC: 술 마시는 사회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창진 술 마약 도박 모두가 다 중독입니다. 마음 둘 곳 없는 사회를 대변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 가정이 파괴 됩니다.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정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꿈을 공유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중독 현상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인명진 사회의 기본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정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행으로 가고 있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의 또 다른 폐해가 가족 이기주의입니다. 부모들은 내 새끼가 잘 되어야 한다 이런 이기주의로 자식들을 사회로 내몰습니다. 재벌들의 재산세습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 공공질서 어떻게 지켜야 하나?

MC: 야간 운전시 횡단보도 신호를 지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현 야간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때일수록 더욱 열심히 지켜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밤늦게 거리에 나왔다면 그만큼 급한 사정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운전하면 사고 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C: 만약 야간에 사람이 없어 그냥 지나갔는데 벌금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당연한 일일까요 억울하고 재수 없는 일일까요?

법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법과 현상을 혼동하는데서 비롯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교통경찰들은 법에 근거하기보다는 실적을 쌓기 위해 혹은 돈을 로비하기 위해 이렇게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반은 위반이죠. 저는 경승으로 경찰들에게도 법문을 하는데요, 교통경찰들에게 위반될 만한 장소에서 숨어서 단속하지 말고 앞으로 나서서 계도하라고 말합니다.

### 인명진 "사람이 기본 되는 사회"

홍창진 "불공정 사회 상대적 박탈감 커"

### 법 현 "시민의식이 리더 만든다"

MC: 우리는 기본을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못 지키는 걸까요?

홍창진 환경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둑놈들은 점잖게 사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다 생각합니다. 이미 세상이 구정물인데 하나 하나 튀긴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초래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공평하게 기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인명진 더 많은 법을 어기고 훨씬 더 기본을 망각한 사람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교통 규칙 위반했다고 그걸 잡아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불공정 사회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시와 요구가 공정한 사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은 안 지켜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tvN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에 법현 스님, 인명진 목사, 홍창진 신부가 출연해 우리 사회의 '기본'에 대해 얘기했다.

### 리더의 중요성

MC: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리더를 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걸까요?

홍창진 핵심의 핵에는 사회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집행을 잘하면 국민이 믿고 맡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구멍이 나고 허술해지면 사회 지도자들이 나서면 됩니다. 구성원들의 힘을 이끌어내는 믿음만한 사회 리더가 필요합니다.

법현 거꾸로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죠. 태풍의 눈이 힘을 가진 핵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에너지가 없고 진공과 같은 상태입니다. 주변의 에너지들이 빈곳을 향해 메꾸어 가면서 태풍이 발전을 합니다. 우리 사회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깨어있어야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MC: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라는 말씀이네요.

법현 책임은 위에서부터 져야 되지만 리더를 만드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시민이 깨어있지 않는 한 리더들은 책임을 인식하지 않을 겁니다.

MC: 우리 사회는 고숙성장을 하면서 기

분을 제대로 쌓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참사를 업보처럼 받고 있습니다.

인명진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내 책임이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넘어졌으니 일어나서 둘러봐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이것이 정말 행복이나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현 헤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처럼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행동하면 잘못하기 어렵고, 서두르지 않을 때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쉬워집니다. 실천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창진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나, 가야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고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국가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도요. 이 꿈을 명확하게 그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 한 명 한 명이 이에 대해 직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삼류 국가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일류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 멘토 3인방 프로필

**법현 스님**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이자 한국 불교대학교 열린선원 선원장인 법현 스님은 '쉬운 불교'를 목표로 시장 한복판에서 상인과 손님들을 대상으로 마음공부를 가르쳐온 '열린 스님'이다.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봉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덕암 스님을 계사로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교무위원장 등 중단 중책을 두루 역임했다.

**인명진 목사**  
총출신인 언변으로 유명한 인명진 목사는 7·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포청천'으로 불려왔다. 스마트교육재단 이사장,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사랑의 채널 이사, 갈릴리 교회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홍창진 신부**  
홍창진 신부는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인 기지촌 여성, 미혼모, 난치병 어린이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천주교계의 '에너지 맨'이라 불린다. 1989년 사제 서품을 받고 광명본당 주임신부로 활동하고 있다.

## 心 靈 治 療 (심령치료)

당신은 심령치료를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노우”라고 대답하리라 생각합니다.

석학이신 이희승 박사 편저 국어대사전에 심령법에 관해 해설되어 있습니다. 또 심령학·심령현상·심령술에 관해서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요법은 비종교 행위입니다. 그럼 심령치료를 대하여 설명해 보면 미국과 소련 등에만 보급되어 있고 미국에는 심령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동양에는 매우 뒤져 있을 뿐 그나마 일본에서는 “일본심령과학협회”라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심령치료의 종류

- ① 재령에 의한 방법
- ② 인연 해체에 의한 방법
- ③ 영계 의사에 의해서 치료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심령치료에는 접촉치료와 손바닥 치료가 있고 저마다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약이나 물리적 치료 등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심령학·심령술·심령현상 등 복잡한 내용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만 심령요법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심령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본원에 오셔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오래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의학 등 방법으로 못 고치는 분은 심령치료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도 효과가 있습니다. 2~3일 이면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많은 환자를 심령요법으로 치료하였습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 2동 602-4호

靑 岩 禪 院 전화 02)992-8624

##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는

###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종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형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